니시야마이나리 신사

구마가와주쿠라는 역사적인 역참마을 시몬초 입구 근처 산비탈에 있는 붉은색 도리이는 니시야마이나리 신사로 이어지는 참배길 입구입니다. 비탈 더 위에 있는 작은 신사는 농업과 상업의 신 이나리(稲荷)가 모셔져 있습니다.

니시야마이나리 신사는 수세기에 걸쳐 숭배되어 온 곳입니다. 니시야마이나리 신사는 상업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명소로,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. 신사가 지어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, 이 지역에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1680 년부터 1760 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. 신의 영혼은 교토에 있는 이나리 신사의 총본궁인 후시미이나리타이샤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. 니시야마이나리 신사에서는 후시미이나리타이샤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을에 사람들의 소원이 적힌 호마목(나무막대)을 신성한 불로 태우는 '오히타키'라는 의식이 거행됩니다. 이 의식은 구마가와주쿠와 같은 역참마을과 옛 도읍인 교토 사이에서 식량이나 그 외 상품의 거래와 더불어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.

니시야마이나리 신사를 방문할 때는 쓰러진 나무에 의해 길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악천후 시 등산은 삼가 주십시오.